

3월부터 닫힌 학교는 아직 오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지내고 계신지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인도는 여전히 덥지만 계절의 변화를 미묘하게 눈과 소리로 느껴집니다. 계절을 알리는 목화밭에서 꽃이 피어나고 벼들은 옆에 익어가고 있습니다.

3월부터 닫힌 학교는 아직 오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학교와 대학교, 투선센터의 집합금지를 해제한다는 발표가 있기전까지는 오픈이 어렵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생과 못 받는 학생의 경제력 차이를 극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배움의 기쁨을 가난한 학생들도 누릴 수 있기를,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지인의 부탁으로 한 지역의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 찬양, 경배와 찬양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봉쇄로 집에 가지 못했던 학생들이 3달정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7월부터 조심스럽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모든것에 조심하며 그곳에 다녀옵니다. 모든 종교 모임이 아직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가 있어 저는 이곳에서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더욱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고 행할 수 있도록
2. 영어와 힌디어로 잘 표현하여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도록
3. 학교 어린 학생들의 건강과 속히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열리도록
4. 영육의 강건함 위해

---인도 남국회 선교사---

이달 15일에는 드디어 공립학교가 오픈해서 오랫동안 집에 갇혀있던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주간에서 안부를 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아직까지 모임제한, 마스크 착용의무화등 여러가지 제재조치들이 계속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이제는 확진자수도 줄어들고, 해외 여행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국경을 오픈하는 등 상황이 호전되고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달 15일에는 드디어 공립학교가 오픈해서 오랫동안 집에 갇혀있던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8월에도 아라랏미션에서 후원하고 있는 불우아동 150명과 장애인 가족들에게 3톤 가량의 음식과 식용유, 과자등 음식을 구입해서 나눠줬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본교회 그룹 25에서 행복나눔 프로젝트로 특별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더욱 풍족하고 다양하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미국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선뜻 행복을 나눠주시는 본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아라랏미션스쿨(AMS) 학생과 기도훈련자등 40여명이 아르메니아 남쪽 이란국경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8월 정기 리유언 모임을 가졌습니다. 리유언 모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강의에만 받고 있는 학생들이 한 달에 한번씩 3박4일 코스로 함께 모여 미션 스피릿을 나누고, 팀웍을 다지며 함께 기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란국경에 준비된 선교센터및 게스트하우스는 이란과 터키에 아웃리치를 나가게 될 선교팀들이 중간 전초 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드디어 공립학교들이 오픈해서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갑니다. 백투스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질 수 있도록...
2. 아라랏미션 스쿨 학생들이 장기 선교사로 준비되고 파송받아 이슬람 선교지로 나갈 수 있도록...
3. 아르메니아 남쪽, 이란 국경 지역에 준비되고있는 미션센터가 잘 세워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4. 모든 모임 제재조치가 완화돼서 오는 11월에는 아라랏 트레스 디아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5. 돌보고 있는 장애인 아동가운데 발로자(12)는 보행기에 의지해서 힘들게 걷고 있는데... 영치뼈 수술을 해주면 정상인 처럼 걸을수 있다고 합니다. 발로자가 수술을 받아 멀쩡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르메니아 백승환, 올라 선교사 올림---



# 은혜한인교회 선교 소식

2020년 10월 4일

선교사 현황

58개국 344명

자체 파송 71%

“코로나하고 같이 살자”로 슬로건을 바꾸고 모든 통제를 다 풀고 학교만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그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추석이 다가오니 여기도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분이 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일찌감치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자”에서 “코로나하고 같이 살자”로 슬로건을 바꾸고 모든 통제를 다 풀고 학교만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사역센터는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허허벌판이라 코로나 발생 초부터 별 무리 없이 교회사역 학교사역 기도모임 세미나를 멈추지 않고 진행해 올 수 있었고 이 질병으로 인해 공식확인 된 환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이러한 상황으로 이제 이곳 사역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일할 수 있게 사역자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즉 현지 사역자들 스스로 자립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자들을 이 나라 전역에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멜 기도회, 금요 선교세미나와 철야 그리고 토요일에는 필드(지역 마을과 교회)에 가서 전도와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지역마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를 통해서 세워진 사역자들이 이제는 본인들 스스로 이 나라 154군단위(400여종족)에 복음전도자와 크리스찬 지도자를 한 사람 이상을 세우는 선교사역 훈련을 시키기 위해 특별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새로 오픈한 독수리학교와 미라클씨드스쿨에 학생이 더 많이 모집되게(현재 약300명중 모슬렘이 30%이상임)
2. 건축중인 그레이스 까수르교회가 11월 말까지 잘 완공되게(대지120평 건평80평 수용인원약300명가능)
3. 준비중인 전국154군단위 사역자 선교훈련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게
4. 8년째 운영하고 있는 물리치료 비즈니스센터에 찾아오는 의사 변호사 법관 사업가등등 상류층 인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일하는 동역자와 스태프들에게 성령님의 기쁨이 부어지고 지혜를 주시도록
5. 신청중인 1년짜리 비즈니스비자가 순적하게 잘 나오도록(4명)

--P 국정영태 정화심선교사--



## 광고

Amazon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 account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Grace Korea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 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smile.amazon.com/ch/95-3861464.

**현재 몰도바는 하루 400~5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

8월31일 부터 몰도바 정부는 인구 10만명당 확진자가 50명 미만인 국가들(한국 포함)로부터 오는 외국인들의 몰도바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증상이 확인될 경우, 14일 자가 격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몰도바는 확진자 43,734명, 사망자 1,143명이고, 최근에는 하루 400~5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지의 상황도 좋지 않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서 저는 내년 초에 입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해외 거주 현지인들의 왕래로 인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어렵고 힘든 긴 터널을 무사히 잘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9월 초까지 신림에 있는 선교관에서 지내다가, 지난 주부터 시흥에 있는 정왕동이라는 지역의 선교관으로 이동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부족한 중에도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출국 전까지 이 곳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상반기에 건강검진을 하였습니다. 검진 결과 살이 많이 찌서 고혈압이 의심되고,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어서 건강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체중 조절을 위해 식단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건강한 육체와 바른 정신으로 주님이 상용하시기 원하시는 그 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9월 1일 부터는 영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언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조금씩 채워져, 주님이 사용하시기 좋은 그릇으로 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더 잘 이야기하고 이해하며 소통하는 제가 되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

- 1. 주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 걷는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 2. 언어(영어)를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몰도바 소식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가끔 몰도바 현지와의 소통을 하면서 루마니아어도 계속 익힐 수 있기를~)
- 3. 주님이 예비해주시는 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 4. 몰도바에 주님의 긍휼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임하도록~  
(몰도바에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확진자와 사망자가 줄어들고 안정되어지기를~)
- 5. 더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유지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저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한국(몰도바)에서.

-- 몰도바정석영선교사--

**편찮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 센 베제르부르그 조경호 조명숙선교사--머리에 종양을제거하는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치료의 손길과 성령님의 평강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기바랍니다

2. 터키 최지섭 이해영선교사-지난 금요일 조직검사 결과 왼쪽 엉치뼈로 암이 전이 되었습니다. 앞 전 검사 결과와 다르게 나오니 저희 마음이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치료 일정을 어떻게 할지 어려운 상황이며 선택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내와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생겨나길 기도부탁드립니다.

3. 한국의 황OO 교회 최O 선교사--9월 21일에 간이식 수술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평강의손길이 함께하셔서하루속히쾌차하실수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네팔 이예신 선교사--몇 일 입원하여 다시 항암을 시작하자고 하네요 많이 두렵지만 함께 기도해 주시니 큰 힘이 되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 스웨덴 김명자선교사 체장암 치료를위해서 면역력이 없어서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명적이니 , 물리치료도 못오게 하구 매주 받던 항암치료도 3주에 2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주세요

6. 태국 박경덕 신미선 선교사-턱에 혹이 생겨 제거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신마취해서 수술해야 한다고 해서 좀 더 지켜 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아내도 가슴에 난 혹이 자라서 조직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당장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가슴과 갑상선에 있는 혹들도 사라지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25년째 모든 핍박을 인내하며 천국에서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이곳 내전이 한창이던 1994년 3월 지역에 교회 개척을위해파송될사람을 찾는데 7명의 후보자가 파송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7명의 후보자중에 막 40 일 금식을 끝낸 비타가 선택되어저 지역 교회 개척을 위해파송되어졌습니다 . 내전이 한창이던 내전의 중심 도시에 비타를 데리고가서 교회를개척하게되었는데처음 개척예배에 30여명의건장한청년들이 모였고처음개척 예배를드리게되었습니다 . 개척예배를 드린후제자를개척지에 두고 오는 저의 마음은양을이리 가운데두고오는선생의마음이었습니다 . 비타는 내전중에 고아가 된 수많은 아이들을 데려다가섬기며 사역을하게되었습니다 . 교회 사역과 고아사역과 주변의 도시를 다니며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양육하게되었습니다

사역중에말로다할수없는 핍박이있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명을 내건 사역은 계속되고있습니다 . 러시아로 이시간 남편이 러시아로 오라고 하지만 자신은 이곳의 교회와 성도들을위해 삶을 바치겠다고 25년째 갖은 핍박을 인내하며 천국에서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 그러한비타에게 심각한 문제가생겼습니다 . 이나라 전체적으로 행해지고있는도시개발에 비타교회도재건축을 해야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 고아들을 섬기며 교회사역을 하는 비타에게는 교회를 재건축할 힘이 없습니다 . 교회건물을 재건축하지 못하면 비타는 고아들과 함께 길거리에 나앉게됩니다 . 비타는 성도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

"오호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올꼬 천지를 지으신여호와께로다"

도우실분은주님뿐이십니다 . 주님이비타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타가 남은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고아들을 섬기며 양육할수 있는 건물을 건축할수 있도록기도해주십시오 . 두메산골에서드립니다 .

--두산베최윤섭선교사--

**코로나 19로 인해 저희는 함께 모이는 예배를 멈추고 인터넷을 통해 성도들이 예배에...**

유업의 상급을 함께 나눌 귀한 동역자, 기도 후원자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키르기즈스탄에서 문안 드립니다. 정말 오래간 만에 기도 편지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곳 키르기즈스탄은 가을이 되었습니다. 산 위에는 벌써 눈이 내려 설산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저희가 사역하는 키르기즈스탄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 3달간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 지금은 회복되어 다시 사역에 임했습니다. 아직 피곤함이 남아 있지만 이 역시도 조금씩 좋아 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저희는 함께 모이는 예배를 멈추고 인터넷을 통해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예배가 불가능해지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멈추어 지면서 성도들은 영적으로 많은 침체 속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 역시 함께 모이는 예배가 없어지면서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또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회의 자연적 성장의 동력이었던 알파 코스 역시 현재는 멈추어진 상태입니다. 신학교는 국경이 닫히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오셨던 교수님들이 오시지 못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는 저희 교회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지금은 거의 비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온라인 콘텐츠를 잘 만들어 아이들이 쉽게 예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신학교와 DBS성경연구 프로그램도 온라인 클래스를 열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교수님들과 강사님들이 외국에서 직접 강의 하시면 이곳에서 통역과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강의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해 하고 이곳 키르기즈스탄 안에서 강의를 제작해서 인터넷 상에서 학생들이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교회 안에 온라인 예배와 제자훈련, 신학교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실무자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스튜디오를 교회 안에 설치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이 계속된다면 모든 선교지, 모든 교회들이 저희와 같이 특별한 결단과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여러 지역에 다니며 복음전파를 하던 것을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빠른 시간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역시 지금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은 전세계 모든 교회들의 당연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건물 중심의 모임이 어려워질 것이고, 온라인 상에서 모든 사역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은 앞으로 인터넷 상에서 디지털교회가 열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들이 4차 산업혁명의 언택트 기술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빠져 있지 않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키르기즈스탄에서 강형민 숙진 선교사--